



# 중간선거 전 이상 시그널 - 텍사스 민주당 승리가 말하는 것

1 1 7 927

## 텍사스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공화당 텃밭이라고 불리는 텍사스 주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두 자릿수 격차로 이겼다.

14%포인트 차이였다.

Article

공화당은 이걸 "중간선거 앞둔 경고 신호"라고 평가했다.  
9개월 후면 중간선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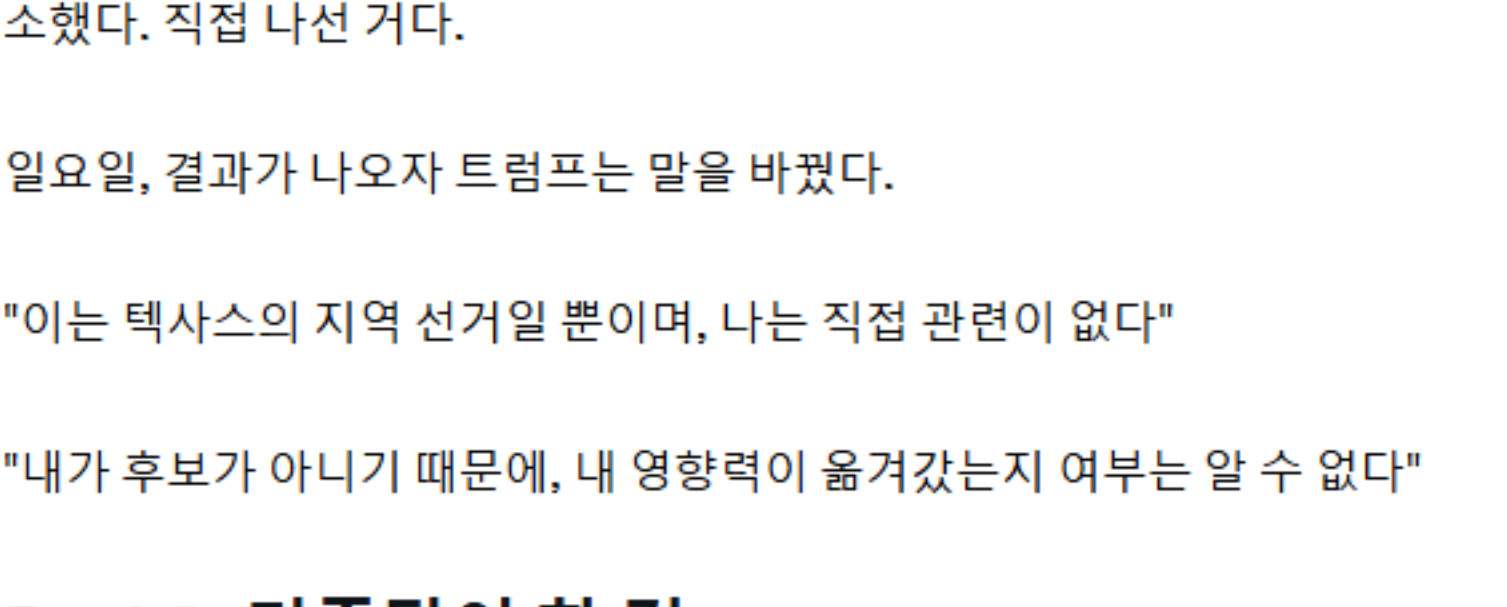
## Part 1: 텍사스에서 무슨 일이?

토요일, 델러스 인근 타런트 카운티에서 주 상원의원 보궐선거가 열렸다.

민주당 후보 테일러 레멧(노동조합 소속 기계공, 공군 참전용사)이 공화당 후보 리 와흐스겐스를 14%포인트 이상 차이로 누르고 승리했다.

이 지역은 공화당 성향이 강한 곳이다.  
트럼프가 2024년 대선에서 타런트 카운티를 5%포인트 차로 이겼던 지역이다. 2020년에는 바이든이 간신히 이겼지만(2,000표 미만 차이), 다시 공화당 텃밭으로 돌아온 곳이었다.

그런데 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14%포인트 차로 이겼다.



텍사스 주 상원의원 보궐선거 민주당 후보 테일러 레멧(Taylor Rehmet). 노동조합 소속 기계공 출신이자 미 공군 참전용사  
source : Texas AFL-CIO

[텍사스 보궐선거: 공화당 텃밭 → 민주당 14%p 차 승리]

트럼프는 토요일 와흐스겐스를 "진정한 MAGA 전사"라고 부르며 지지를 호소했다. 직접 나선 거다.

일요일, 결과가 나오자 트럼프는 말을 바꿨다.

"이는 텍사스의 지역 선거일 뿐이며, 나는 직접 관련이 없다"

"내가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내 영향력이 옮겨갔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 Part 2: 민주당이 한 것

민주당은 이 결과를 중간선거 모멘텀으로 해석했다.

Article

최근 몇 달간 미국 전역의 지방 및 주 단위 선거에서 민주당이 연이어 승리하고 있다는 흐름에 이어진 결과다.

[민주당 시각: 지방선거 연속 승리 → 중간선거 모멘텀]

## Part 3: 공화당이 한 것

패배한 와흐스겐스는 성명을 냈다.

"민주당 지지층은 결집했고, 너무 많은 공화당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았다"

"지역, 전국 공화당에 대한 경고 신호"

폭풍우 때문에 투표율이 낮았다는 변명도 말았지만, 핵심은 "경고 신호"였다.

[공화당 시각: 유권자 동원 실패 → 중간선거 경고]

## Part 4: 이게 왜 중요한가

이 선거가 뭔가?

미국은 연방 국회(Federal Congress)와 각 주마다 주 의회(State Legislature)가

Article

이번 선거는:

- 대통령 선거 앞뎀
- 연방 국회의원 선거 앞뎀
- 텍사스 주 의회 의원 1명 보궐선거

비유하면:

- 미국 연방 국회 = 학교 학생회
- 텍사스 주 의회 = 한 학년 반장 회의
- 이번 선거 = 한 반에서 반장 한 명 다시 뽑기

규모는 작다.

[선거 규모: 텍사스 주 상원의원 1명 보궐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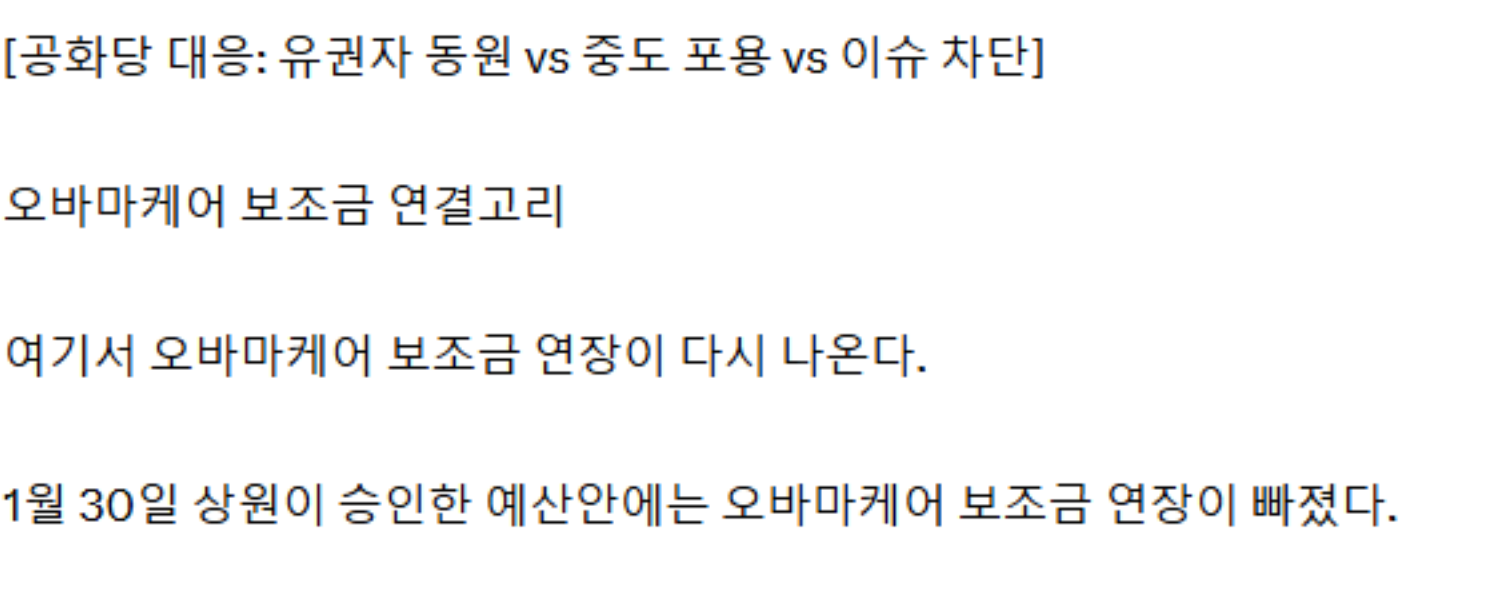
왜 이슈가 되나?

첫째, 공화당 텃밭에서 졌다.

텍사스는 공화당 텃밭이다. 트럼프가 2024년에 이긴 지역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겼다.

Article

반심 변화할 보탬을 줄 수 있는 신호나.



텍사스 S-D-9 지역 투표 결과 지도.  
파란색은 민주당, 빨간색은 공화당 우세 지역.  
source : Texas AFL-CIO (선거 결과 시각화 자료)

[민심 변화 신호: 공화당 텃밭 → 민주당 14%p 승리]

둘째, 중간선거 9개월 전이다.

2026년 11월 중간선거가 9개월 남았다.

Article

시골 공화당이 아칸-강권 보수 강역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하원이더라도 탈환하면 트럼프의 입법 동력이 꺾인다.

텍사스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공화당 입장에서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중간선거 임박: 9개월 후 → 민주당 반등 가능성]

셋째, 트럼프 지지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트럼프가 직접 지지를 호소했는데 졌다.

2024년 대선에서는 트럼프가 5%p 차로 이긴 지역인데, 2026년 보궐선거에서는 트럼프 지지 후보가 14%p 차로 졌다.

트럼프 인기가 떨어졌거나, 트럼프 지지가 다른 후보에게 옮겨가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효과: 2024년 5%p 승 → 2026년 14%p 패 = 지지 효과 제한적]

## Part 5: 시장은 이걸 어떻게 볼까

시장이 경계하는 것

Article

트럼프의 입법 동력이 꺾인다.

영향:

- 감세 연장 어려워질 수 있음
- 규제 완화 속도 둔화
- 재정 지출 확대 가능성
- 정책 불확실성 증가

[민주당 하원 탈환 시: 트럼프 입법 동력 약화 = 정책 불확실성]

공화당이 할 수 있는 것

텍사스 패배를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면 공화당이 할 수 있는 건?

선택지 1: 유권자 동원 강화

보수 유권자들을 투표장에 나오게 만들기. 이슈 만들기. 위기감 조성.

선택지 2: 중도층 끌어안기

텍사스에서 진 이유가 중도층 이탈이라면, 중도 정책으로 선회, 극우 성향 완

Article

선택지 3: 민주당 이슈 차단

민주당이 공격하는 이슈(의료, 사회보장)를 선제적으로 해결. 오바마케어 보조금 같은 거.

[공화당 대응: 유권자 동원 vs 중도 포용 vs 이슈 차단]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결고리

여기서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이 다시 나온다.

1월 30일 상원이 승인한 예산안에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이 빠졌다.

하원만 통과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걸 중간선거 무기로 들고 갈 수 있다.

시나리오:

- 오바마케어 보조금 끊김
- 공화당 주에서 의료비 폭탄
- 민주당: "우리는 찬성했다. 공화당이 막았다"
- 중간선거 때 공화당 타격

Article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빨리 통과시킬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간선거 전에 민주당에게 무기를 안 주려는 거다.

[텍사스 패배 → 공화당 긴장 →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압박 증가 가능]

## Part 6: ISM 제조업 지수와 연결

2월 3일,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됐다.

예상 48.5 → 실제 52.6

26개월 만에 50 돌파. 경제 회복 신호.

증시는 상승했다. S&P 500 사상 최고지 근처.

시장의 시각:

- 경제 회복 → 기업 실적 개선
- 재무부 잔고 풀림 → 유동성 증가
-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 안정

Article

[시장: ISM 50 돌파 + 유동성 증가 = 경제 회복 낙관]



ISM 제조업 PMI 장기 추이 (2000~2026).  
50 이상은 경기 확장, 50 이하는 경기 위축을 의미한다.  
2026년 1월 지수는 52.6으로 약 26개월 만에 50선을 상회했다.  
source : Vettafi / Advisor Perspectives

그런데 텍사스 선거 결과가 나왔다.

중간선거 9개월 전, 공화당 텃밭에서 민주당 승리.

Article

정치 리스크:

- 중간선거 불확실성
- 트럼프 입법 동력 약화 가능성
- 감세 연장 불투명
- 정책 변동성

[정치 리스크: 중간선거 불확실성 + 트럼프 동력 약화 가능성]

경제는 회복하는데, 정치는 불안해진다.

## Part 7: 누가 맞나

경제 낙관론

ISM 제조업 지수 52.6. 신규 주문 571. 생산 가속화.

재무부 잔고 풀림 가능성. 은행 지급준비금 증가 전망. 유동성 풍부.

트럼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이란 대화, 인도 관세 합의).

경제 회복 시가 대박

Article

[생재: ISM 50 돌파 + 유동성 증가 + 인방 + 사양력 완화 = 외족]

정치 불확실성

텍사스 민주당 승리. 중간선거 9개월 전.

공화당 긴장. 민주당 모멘텀.

트럼프 지지 효과 제한적.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탈환하면 트럼프 입법 동력 약화.

감세 연장, 규제 완화 속도 둔화 가능.

[정치: 텍사스 패배 + 중간선거 불확실성 = 트럼프 동력 약화 가능]

어느 쪽이 중요한가?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중요하다.

ISM 지수, 유동성, 기업 실적. 이게 주가를 움직인다.

중장기적으로는 정치가 중요하다.

Article

2026년 11월까지의 경제 데이터가 주가를 이끈다.

11월 이후에는 중간선거 결과가 방향을 결정한다.

[단기: 경제 > 정치 / 중장기: 정치 ≥ 경제]

## 정리

텍사스 주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14%포인트 차로 이겼다.

공화당 텃밭에서, 트럼프가 지지한 후보가 졌다.

공화당은 이걸 "중간선거 앞둔 경고 신호"라고 평가했다.

중간선거가 9개월 남았다.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면 트럼프의 입법 동력이 꺾인다. 감세 연장, 규제 완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

공화당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같은 민감한 이슈를 중간선거 전에 해결하려는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위 2월 3일 ISM 제조업 지수는 52.6으로 26개월 만에 50을 돌파했다. 경제

Article

경제는 회복하는데, 정치는 불안해졌다.

단기적으로는 경제 데이터가 주가를 이끈다.

중장기적으로는 11월 중간선거 결과가 방향을 결정한다.

텍사스 선거 결과는 그 중간선거가 예상보다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신호다

@iamminuco

Want to publish your own Article? Upgrade to Premium

3:39 PM · Feb 3, 2026 · 927 Views

1 1 7 2